

일본서 가장 가벼운 순면 오리털 이불감 -

1평당미터에 92.4그램

일본의 이불감 전문 K도매상은 오리털 이불용 순면 주자직(朱子織 : sateen)의 1평방미터당 무게가 92.4 그램(gram)으로 일본의 이불감 업계에서 가장 가벼운 상품을 발표하였다.

오리털은 오리의 속털(down)로서 매우 섬세하며, 오리털 하나 하나가 매우 가벼우면서 잘 퍼져있어, 보온제로서는 양털보다도 훨씬 우수하나, 워낙 오리의 속털이 많지 않아 귀하고 매우 비싼데, 이 오리털은 보온용 옷솜으로서 옷속에 넣기도 하고, 이불속에 넣기도 하고 있다. 그런데 오리털을 싸주고 있는 천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구멍만 있어도, 그 구멍으로 오리털이 빠져 나오므로, 오리털이 빠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그 방안으로 필라멘트 직물은 “다운·프루프(down-proof) 수지가공”을 하고 “다운·프루프 테스트”로 확인하고 있으며, 면직물의 경우는, 고도의 제직기술로 적절한 직물조직에 경위의 밀도가 매우 치밀한 고밀도 직물을 제직하여 다운프루프 효과를 내기도 하고, 밀도만으로는 부족하면 수지가공도 하고 있다.

이 도매상은 이미 100그램을 밑도는 99그램의 순면주자직 오리털 이불감을 판매하고 있는데, 이 주자직은 경사에 200수 쌍사, 위사에 300수 쌍사급의 정방교연사(精紡交撚絲)로 짠 직물이다. 이번에 새로 발표한 92.4그램의 주자직 오리털 이불감은 경사에 245수 쌍사, 위사에 300수 쌍사급의 정방교연사를 사용하고 있다. 이 상품은 원면 수배관계로 금년 추동 상품부터 시판

될 것이다.